

## 존경하는 한국지반신소재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겨울의 중앙에서 연말연시를 따뜻하게 보내고 계신지요?  
동지를 지나 이제 봄으로 치닫고 있어 차디찬 북풍도 머잖아  
아지랑이처럼 사라질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국지반신소재학회 제10대(2019년도) 회장으로 입후보한 중앙대학교 한중근(韓重根)입니다.

현재 중앙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학회에서는 이사, 논문집편집위원장, 논문집편집진담이사, 부회장(학술담당), IGS국제회원, 11ICG준비위원 및 후원위원회장 및 10년사 발간사업 위원회를 역임하였으며 관련학회로 한국지반공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등에서 이사, 평의원 등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우수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반신소재학회는 한국지반공학회 소속 IGS한국지부로 활용하다가 2001년 4월 전문학회(한국토목섬유학회)로 출범한지 18년이 되었습니다. 2004년 Geo Asia를 개최하면서 지금의 학회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고, 2017년에는 한국토목섬유학회에서 한국지반신소재학회로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학회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8년에는 11ICG를 국내에서 개최하면서 세계적으로 우리학회의 명성을 떨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이은수 박사님부터 시작된 IGS Council member로서 활동이 9대 회장인신 유충식 교수의 IGS회장이 되는 명예로운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에 있는 현재, 우리학회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우리 학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선배님들의 노고가 참으로 대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으며 또한, 우리 학회를 처음 일으켜 세워 지금에 이르는 한 1세대 우리학회 선배님들이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학회는 다시금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일어서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학회장이 된다면 침체에 빠진 건설산업 및 Geosynthetics 분야에서 우리학회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중점적으로 실현해보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주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 첫째, 우리학회의 정부관련 소속을 국토교통부로 소속을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학회는 전문학회로서 시작한 때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거 미래부 등)에 소속되어 건설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관련법규 개정 및 적용에서 항상 소외되어 있어 자력으로 표준시방서나 지침서등을 제작배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건설현장에서도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학회(한국지반공학회 등)들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하여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IGS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업체위주 활동과 유사한 형태로의 발전을 위한 터전으로 삼고자 합니다.

**■ 둘째, 우리학회를 관련업체(보강토, Geosynthetics 제조 및 시공)들의 협의의 장으로 만들  
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학회를 세우고 이끌어 오신 대부분의 선배님들은 학교, 연구원등에서 주도로 규칙을 만들고 적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 왔습니다. 이미 국제시장에서는 신소재분야의 일원으로 규모가 수백조원대에 이르고 있지만 국내의 현실은 아직 법규나 규칙의 제정에도 미흡하여 공기업조차에서도 일정한 code 등의 마련이 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각종 사고들 중 보강토구조물과 관련한 사건사고들은 아직도 우리학회의 일이 아니고 관련학회에서조차도 중요사항이 아닌 것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우리학회의 소속 변경과 함께 관련업체들에 대한 경각심과 이론적 배경 및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해결하는 협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시공하는 영세업체들과 이를 유지하고 설계·시공하는 그 상위 업계대표 및 기술자에 맞춤형 교육과 발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보다 많은 업체의 참여는 가장 업체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경기도부터 시작하여 전국각지로 확산시키게 되면 곧 IGS처럼 업체가 주도하는 지반신소재학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셋째, 우리학회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2단계 학회발전의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학회는 대기업위주의 참여기업과 회원위주로 운영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대규모공사와 더불어 관련공사가 진행되는 관점을 간과해서는 안되지만, 이제는 발주처 소속(관공서 등) 및 설계분야 사람들을 회원화하고 이를 통해 회원확보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설계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보강토설계에서 시공까지 문제화 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과 자문을 통해 안전한 지반신소재(보강토, Geosynthetics 등)의 활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여를 통해 학회 재정의 건전성은 지금부터 좋아지는 계기가 되어 2020년이후 안정적 학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글로벌화되어가는 우리학회의 위상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IGS 멤버를 확대확보하고 학회 회원을 매년 50~100명씩 늘려 학회 회원수에서도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GS회장을 보유한 명실공히 회장국가로서 위상이 떨어지지 않는 국제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회원의 확보가 필수적일 것이며 학회활동에 부담이 없는 자연스러운 활동이 가능한 학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반신소재학회 회원 여러분!**

많은 선배님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어 지금의 학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추어 우리학회도 이에 걸 맞는 수준있는 학회로 발돋움 해야만 하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적 몸집과 건강을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님들의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한 중 근 올림